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다.
남에게 상처줘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5월 11일)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은닉 성보 환수 '청신호' 켜졌다

대법원, 문화재 은닉 사건에 몰수 명령 확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법 유통된 불교 성보 문화재를 수십 년 동안 은닉해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내려졌던 유죄 선고와 '몰수'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난당해 제자리에 갈 수 없었던 불교 성보들이 '환지본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는 6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또한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에 대해 내려진 '몰수' 명령도 확정됐다.

지난 1993년부터 서울 종로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한 A씨는 종로구 소재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서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해왔다. 이들 범행에 꼬리가 잡힌 것은 지난 2016년 B씨가 은닉해오던 불교문화재 11점을 사찰 등에 처분하려다 발각되면서부터다. 당시 그들의 범행은 교계 언론과 일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은 압류됐다.

이후 B씨의 문화재 알선 혐의는 A씨의 은닉 혐의와 함께 병합돼 형사재판이 진행됐으며,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몰수 명령은 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은닉 행위 이전에 도난 문화재라는 것을 인지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 측은 항소했으며, A · B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계종 문화부 역시 재판부에 2차례에 걸쳐 "도난 성보가 원래 봉안처로 온전히 돌아가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 근절을 위해서라도 압류물 몰수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A, B씨에 대한 양형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39점의 불교 성보들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내 수장고에 임시 보관돼 있었다. A씨는 2017년 3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물건 인도 등 청구 소송' 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반환에 대한 위험성도 컸다.

하지만 당시 서울고법은 "유무죄 여부를 가릴 땐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몰수 요건을 살필 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며 몰수 선고를 내렸다.

또한 "불교문화재의 유통은 일반적이지 않다. 수 십년간 사립박물관장을 역임한 문화재 전문가인 A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들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점도 문제를 삼았다.

고법 前사립박물관장 A씨에
은닉 불교문화재 '몰수' 명령
A씨 항소… 대법 상고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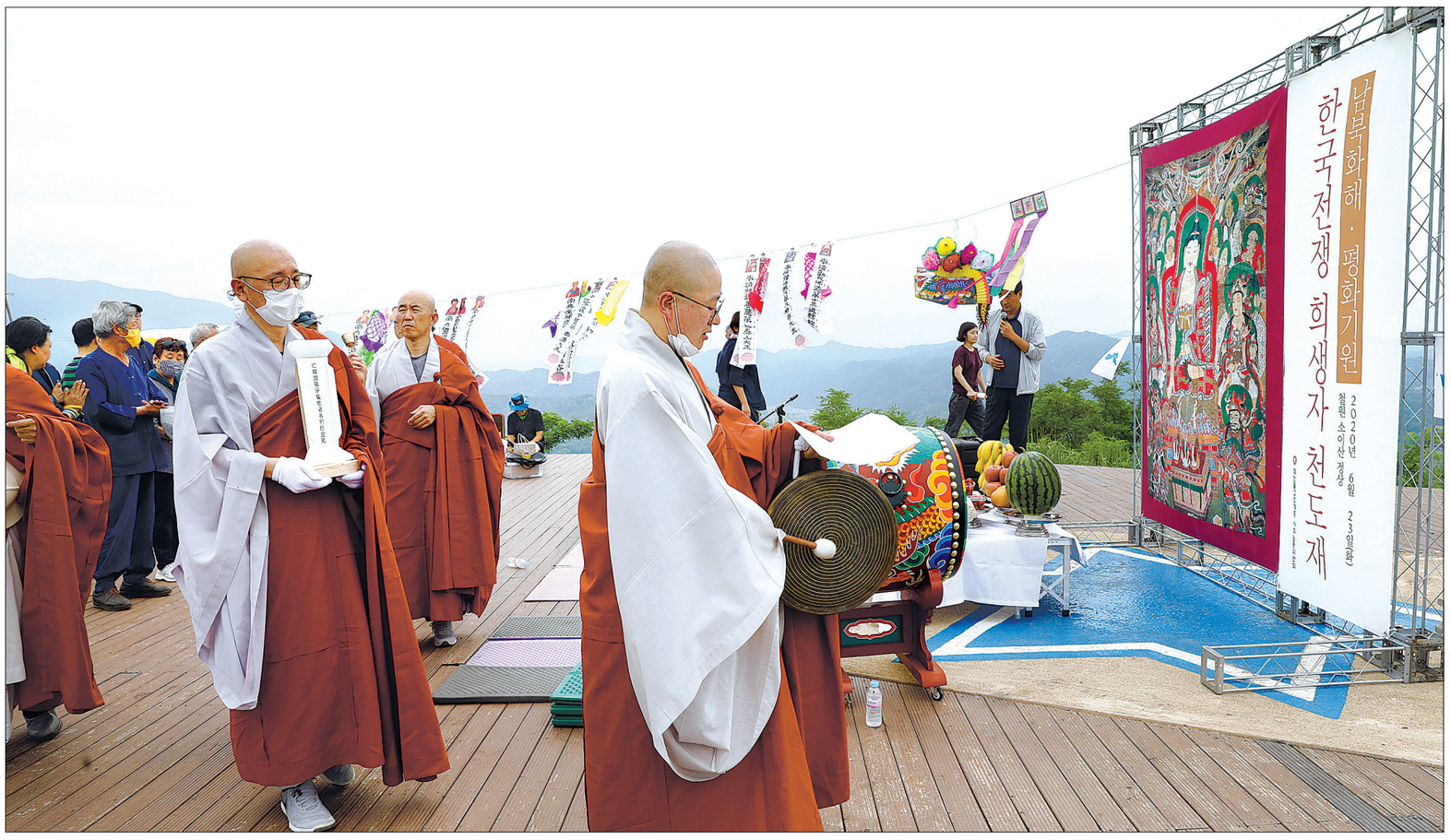
성보 39점 환지본처 가능해
도난문화재 판결 중요 선례

은닉 문화재에 대한 몰수 선고는 극히 드문 사례로 은닉 성보 환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불교 성보 유통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는 2심의 판단이 인정됐다. 문화재 몰수 판결은 불교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라면서 "향후 도난 · 은닉 성보 관련 판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 문화재의 유통이 비상식적인 일임이 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게 됐다. 도난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몰수 명령 확정에 대해 피해 사찰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993년 주불 아미타불을 도난당한 전북 장수 팔성사 주지 법륜 스님은 "새벽 5시에 출발해 대법원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됐다. 지난 25년간 부모를 잃어버린 죄인으로 살았다. 이제 부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기쁘다"며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잃어버린 성보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23일 강원도 철원 소이산 평화마루 공원 정상에서 '한국전쟁 70년 돌아가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재' 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백마고지 울린 처연한 염불 소리

조계종 사노위, 철원 평화공원서 천도재 봉행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해발 362m의 소이산 정상에 괘불이 우뚝 섰다. 드넓은 철원평야와 백마고지에 둘러싸여 남과 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가운데, 맑고 처연한 염불 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6월 23일 소이산 평화마루 공원 정상에서 '한국전쟁 70년 돌아가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재' 를 봉행했다. 소이산과 소이산에서 내려다보이는 백마고지와 철원평야는 70년전 6.25한국전쟁 당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격전지다. 한반도 분단 반세기의 아픔이 고스란히 깃든 셈이다.

천도재는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무참하게 희생된 수많은 영령과 유주무주 고혼을 위로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동시에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 민족이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공고한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길 염원했다.

이날 천도의식은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서원 스님을 중심으로, 조계종 사회국장 혜도 스님과 시경 · 월엄 · 도철 · 한수 스님 등 사노위 위원 스님들이 집전했다.

염불과 천도의식, 〈천수경〉 독경 등에 이어 스님들은 '망한국전쟁희생영가' 위패를 들고 〈법성게〉를 봉독하며 영단을 세 번 돌았다. 이어 북측을 바라보며 위패를 소지하고 사방을 향해 절을 하며 유주무주 고혼의 극락왕생과 한반도 평화를 발원했다.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공간에 서서, 70년전 희생자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죽어가야 했는지 되묻고자 한다"며 "오늘 천도재를 통해 과거 이곳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영령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의지와 발원을 모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철원=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前 원로의장 종산 스님 원적



6월 23일 새벽 입적… 세납 97세 · 법랍 72년

조계종 前 원로의장이자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조실인 혜광당 종산 대종사 〈사진〉가 6월 23일 새벽 5시 원적에 들었다. 세납 97세, 법랍 72년.

1924년 전남에서 태어난 혜광당 종산 대종사는 1947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절친한 친구가 병고로 세상을 일찍 떠나자 재를 지내기 위해 찾은 강진 만덕선원에서 불연을 맺게 됐다. 당시 스님은 전각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염불 소리에 반해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는 원력을 세우고 출가했다.

1948년 구례 화엄사에서 도광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52년 화엄불교 전문강원을 졸업했다.

혜광당 종산 대종사는 출가 후 40여 년 동안 오로지 화두일념으로 수행해 온 선승이었다.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천축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41안거를 성만했으며, 범어사 대못수행 일화와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참여는 선승으로서 대종사의 면모를 확인시켜준다.

1988년 조계종 제9대 중앙종회 임시의장, 법제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90년 직지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혜광당 종산 대종사는 2004년 4월 원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2012년까지 활동했다. 2012년 구례 화엄사 조실로 추대됐다.

혜광당 종산 대종사의 빈소는 구례 화엄사 화엄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6월 27일 화엄사에서 엄수됐다.

〈영결식 차주 상보〉

신성민 기자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